지역 소식통

고창군, 축구장 1900개 면적 유체꽃 조성사업 추진

'대한민국 경관농업 1번지' 전북 고창군이 올해 유채꽃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고창군이 10일 오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선 고창군수, 농수축산경제국장, 농생명지원과장과 14개 읍·면장과 추진위원장이 참석했다.

고창군은 올해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지구 1800ha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채 단지의 경우 1400ha(축구장 1909개 면적) 달해 올 봄 고창 들녘의 노란물결 장관이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보전, 관광농업 증진,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농업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그간 진행된 추진상황을 점검해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성공적인 경관지구 조성을 위해 월동 후 발아되지 않거나 얼어붙은 농지에 대한 추가 파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위도면 제4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식

부안군 위도면 제4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9일 위촉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했다.

올해 제4기를 맞이한 위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21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2월 말까지 2년의 임기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위원장에는 백은기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최만 위원이 간사에는 임하영 위원, 감사에는 최충환 위원이 선출되었다.

최병관 위도면장은 "위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위도면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주길 부탁드린다"며 "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행사항 수시 점검해야 할 것"

고창군수,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지시

고창군수가 10일 지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관련, "감염병 확산방지와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 직원이 총력으로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창군은 기존 보건소와 재난부서는 물론, 전 부서를 직원들을 분야별 교대 근무에 투입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창군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현재(8일 기준)까지 모두 3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역학조사에선 설 연휴 귀성객과 타지역방문을 통해 162명(51%), 자가격리 중 38명(12%), 관내 접촉 116명(37%)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창군보건소는 정부의 검사·진료체계 전환방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체계(15분내 검사결과 확인 가능)'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다만, 60세이상 고령자, 동거가족 및 해외입국자, 의사소견서 소지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 등은 기존 PCR(유전자증폭)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창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고창병원),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정내과, 김이비인후과, 대산연합의원) 등을 지정해 늘어나는 재택치료와 자가검사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21개소 종사자 737명)에도 신속항원키트 8844세트(4주간 사용 분량)를 제공해 선제적인 코로나 검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더해 자가격리와 재택치료 전담 공무원 397명 지정, 신속항원검사장 운영지원(군인 3명, 군청직원 4명, 보건소 4명)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고창군수는 "이번 위기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유형별 방역 대책을 세워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축산악취 저감 · 가축 생육 촉진' 두마리 토끼 잡았다

정읍시, BM활성수 지난해 1690농가 1100t 공급… 가축 질병 예방 효과 '톡톡'

정읍시가 BM활성수 공급으로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 생육 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BM활성수는 유용 미생물(Bacteria), 광물(Mineral), 물(Water)의 생물학적 상호 관계를 이용해 미네랄을 추출·농축해 생산된 물이다.

미생물 대사산물과 칼슘, 철, 마그네슘 등 생명체에 유익한 각종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BM활성수는 축산 사료와 급수에 사용하면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 번식을 억제해 축사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다.

또한, 송아지의 설사를 방지하고,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는 등 가축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BM활성수를 무상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690여 농가에 1,100여톤의 BM활성수를 공급해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악취 개선에 기여했다.

BM활성수는 1일 5톤, 연간 최대 1,8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축사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현대화 시설이 어려운 소규모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BM활성수 생산시설을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 생산성 향상과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 BM활성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산시설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봄철 산불 방지 총력… 비상근무 체제 돌입

고창군이 산불예방을 위해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43명, 감시원 57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했다.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를 2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임차 운영하고, 산불감시무인카메라 10대도 가동한다.

특히 군은 봄철 산불 대부분이 등산객, 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객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산불취약지 8294ha와 등산로 10개 노선 60km는 입산이 통제된다.

등산 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 군 홈페이지에서 입산 가능여부 확인 후 입산하고,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된다.

이 밖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들을 활용해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일체 소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재파쇄기 운용과 예초작업으로 산림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방송과 각 읍·면 이장들을 통한 마을방송을 실시해 산불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산림공원과(560-2604)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산불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가예산확보… 동분서주

고창군수, 중앙부처 방문

고창군이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8일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올해 역점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유 군수는 기재부 이승원 국유재산심의관과 강준모 지역예산과장 등을 만나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를 찾아 '고창 국립세계자연유산센터(315억원) 건립 지원'을 건의했다. 고창군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인 충남(서천)·전북(고창)·전남(보성·순천·신안)의 중간기점에 위치해 있다.

또 등재된 모든 갯벌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세계자연유산센터 설립의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유 군수는 고창군이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 환경부를 방문한 자리에선 '흥덕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100억원)', '고수·공음 하수관로 정비사업(221억원)' 등 지역 생활하수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고창군수는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하루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시민창안대회 발굴 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정읍시가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지역공동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시민창안대회 줄기·사후 관리단계에 참여할 공동체를 공모한다.

시민창안대회는 시민들과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실행 단계로 진행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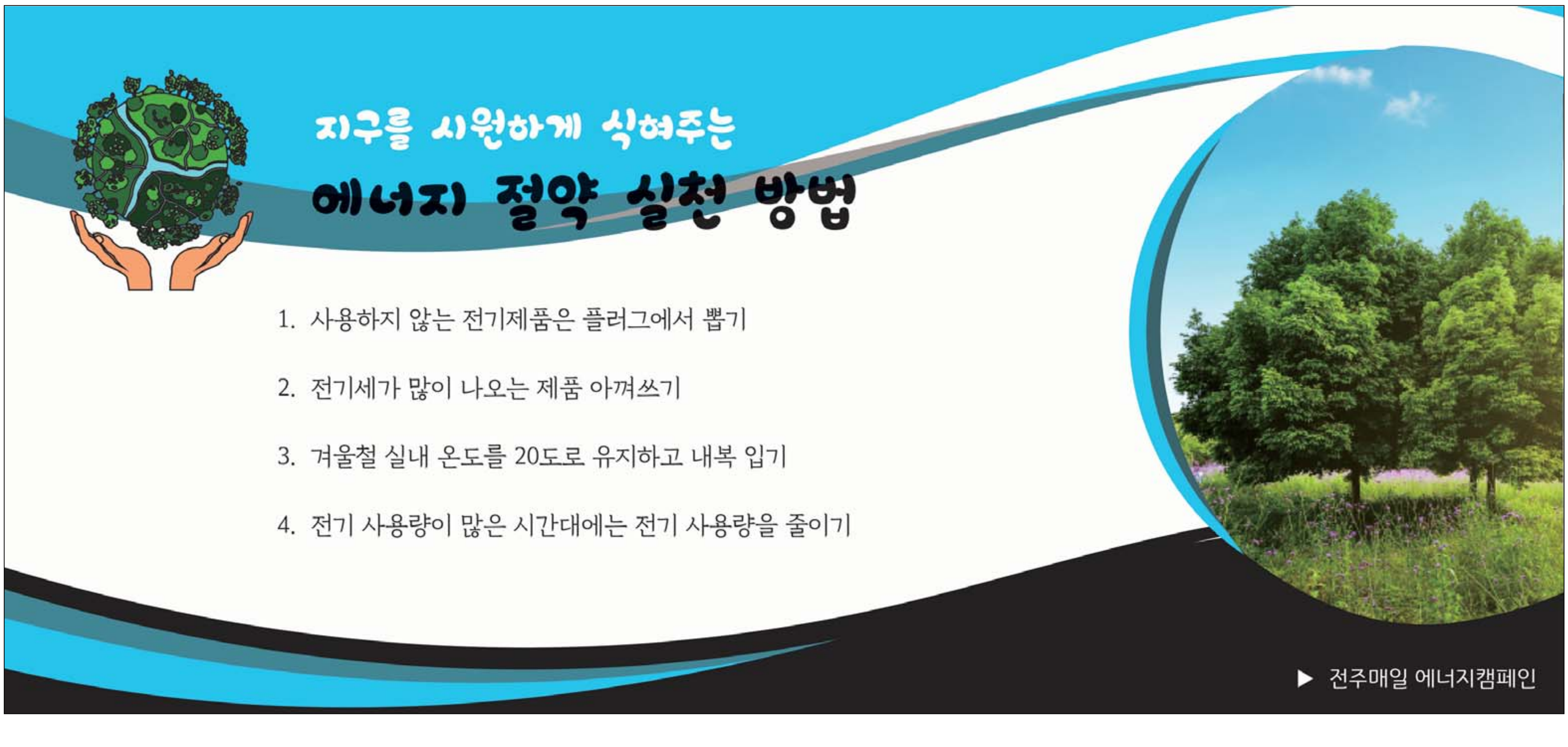
단계별 공동체 육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줄기 단계와 사후 관리단계 등 2개 분야로 심사결과에 따라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정읍시청 공동체과에 제출하면 된다.

줄기 단계사업의 신청 자격은 시민창안대회 뿌리 단계를 완료한 공동체이고, 사후 관리단계사업은 줄기 단계 사업 완료 후 2년이 지난 공동체다.

시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와 현장 면접 심사를 통해 6~8개 공동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체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해 최소 10%의 자부담률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동체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역량을 높여 장차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